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두번째 법회인 제27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 일시 : 2014년 5월 13일 ~ 8월 20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법사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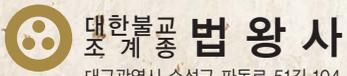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50일차	7월 1일 ㉔	혜해스님	경산 반용사 주지	57일차	7월 8일 ㉔	뽕나디빠스님	한국테라와다불교선원장
51일차	7월 2일 ㉕	대협스님 (비구니)	철곡 정암사 주지	58일차	7월 9일 ㉕	정인스님	창원 불지사 주지
52일차	7월 3일 ㉖	무불스님	의령 우담사 주지	59일차	7월 10일 ㉖	승오스님	구미 원각사 주지
53일차	7월 4일 ㉗	운산스님 (비구니)	청도 운문승가대 강사	60일차	7월 11일 ㉗	마과스님	김천 구룡사 주지
54일차	7월 5일 ㉘	금해스님	울산 황룡사 주지	61일차	7월 12일 ㉘	선진스님 (비구니)	대구 보현암 주지
55일차	7월 6일 ㉙	영인스님	여수 흥국사 부주지	62일차	7월 13일 ㉙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56일차	7월 7일 ㉚	원철스님	보은 법주사 강사	63일차	7월 14일 ㉚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3일(토)

회향 : 2014년 12월 21일(일)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s.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7 | Vol. 242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갑오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6월 23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8월 10일에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기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에게서는 모두 수회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기 도** 이재 7월 6일(음. 6월 10일)
삼재 7월 13일(음. 6월 17일)
사재 7월 20일(음. 6월 24일)
오재 7월 27일(음. 7월 1일)
육재 8월 3일(음. 7월 8일)
막재 8월 10일(음. 7월 15일)
*** 재일은 매주 일요일**

-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 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 의 법왕사 766-3747, 9088

- ※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 ※ 매 재마다 공양물을 올리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영혼결혼식 접수받습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42호



- 04** 깨침의 향기
지혜로워야 깨달을 수 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술산방
부처님 안에서 참 나를 찾자 · 실상 주지스님
- 10** 불교상징의 세계
범종각과 불전사물 · 조명래
- 14** 법왕사 신도광장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한 시간들 · 승혜스님
- 18** 명찰순례
덕주공주의 전설이 담긴 월악산 덕주사
- 22** 기획특집
불교의 노동관 · 마성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7월 01일 발행 | 통권 242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승혜, 자행, 강선옥, 대해궁, 반야화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깨달을 수 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지식이란 세상의
사물에 대해 보고 들어
아는 것이며,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가히 지식과 정보의 혁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지금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큰 발품을 팔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역설적으로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결국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보고 들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智慧)는 다릅니다. 지식이란 세상의 사물에 대해 보고 들어 아는 것이며, 지혜는 이러한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지식은 얻고자 하는 마음이고, 지혜는 들어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法語)를 내리셨는데 이 말은 아주 옛날 중국의 어떤 스님이 하신 말입니다. 범인(凡人)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했다면 이는 지식인 반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같은 말이지만 지혜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이 말을 깨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지혜를 키우는 공부를 해야지, 지식만 늘리는 공부만 하는 것은 알음알이만 늘어나고 아상(我相)만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공부는 마음을 깨치고 지혜를 일깨우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같은 사상(四相)에 사로잡혀 있는 전도된 번뇌 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다르지만 도착하는 곳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빠지고 문자에 빠져 마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적멸처(寂滅處)에 이르면 하나님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멸(寂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멸처가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진면목(眞面目)이고, 극락(極樂)이고, 열반(涅槃)으로 말하는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와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는 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고정 불변하는 것이 없어 매순간마다 어떤 것이 생겨나고, 또한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생멸(生滅)의 변화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세계입니다. 생멸의 순간, 생사(生死)의 경지를 뛰어넘어 버린 경계가 바로 적멸로서 바로 부처님의 경지인 것입니다. 혜개 스님이 지은 ‘무무관(無門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대도(大道)에 문이 없으니
길이 천 갈래라.
이 관문(關門)을 통과하면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는
쳐다보아야 알고,
소금이 얼마나 짠지는
먹어보아야 아는 것처럼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미사여구로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홀로 걸으리.

“대도(大道)에 문이 없으니 길이 천 갈래라”는 말은 하나의 문제에 답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같은 답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구즉착(開口卽錯)’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대답을 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이 곧 틀린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자 가섭존자가 웃음으로 대답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경지가 되어야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선사들이 “할(喝)”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 하나를 번쩍 치켜세우며, 방망이로 내리치는 것 모두가 바로 이심전심의 경지에서 나오는 지혜의 표현, 깨달음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는 쳐다보아야 알고, 소금이 얼마나 짠지는 먹어보아야 아는 것처럼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나열된 지식으로 설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것을 말하려 한다면 바로 개구즉착(開口卽錯)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닌 지혜를 투철(透徹)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보물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 안에서 참 나를 찾자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세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관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관의 중심이며 모든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불교는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불평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 희노애락의 감정,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 등 인간의 모든 인식과 작위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결과 또한 오직 자신에게 귀결되지만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인 자신을 버려두고 외부의 환경, 남 탓을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절실하게 경계하는 인간의 잘못된 마음 작용인 탐진치 삼독심로부

인류가 창안한 종교가 허다하지만 그 가운데서 불교는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중동의 사막지역에서 생겨난 종교는 모든 것을 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인간은 오직 그 신의 영광을 위해 복종하고 신앙하는 부속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 인식, 세계관의 출발점이 바로 '나'입니다. 이는



터 비롯되는 모든 행위는 참된 나, 본래의 나를 포기하면서 하게 되는 작용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애욕과 식욕에 빠져들고, 명예와 안일을 추구하는 풍조는 결국 세계의 중심인 나를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거듭되면서 결국 인간은 번뇌(煩惱)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즉 무정물(無情物)이든지, 식물이든지,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이든 지를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如如)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물질세계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리낌 없는 삶, 자유로운 삶, 향기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아함경(雜阿含經)』에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하므로써 저것이 생한다(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고 했습니다. 나는 세계 속에 던져진 하나의 인간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만 동시에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의 실체(實體)에만 집착하고, 그런 아집(我執)으로 말미암아 대립, 분열 등의 괴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덧없이 자기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릅니다. 더구나 더 가깝게 있을 수록 감사함을 모르고 서로 너무 안이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애를 없애고 참된 지혜를 발현토록 해야 합니다. 매일 쓰고 있는 물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불에 감사하고, 던고 다닐 수 있는 땅에, 마시고 있는 공기에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 감사하고, 나를 있게 한 이 세상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의 씨는 다 같습니다. 단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한 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은 이미 부처님의 발자취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그 발자취를 얼마나 성실하게 따르느냐일 것입니다.



목어

범종각과 불전사물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종을 보관하고 있는 전각을 범종각(梵鐘閣)이라 한다. 이 전각이 1층 구조일 경우에는 범종각이라 하고, 2층 구조일 경우에는 범종루(梵鐘樓)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고·운판·목어·범종의 불전사물

(佛殿四物)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불전사물의 하나인 범고는 지상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운판은 하늘을 날라 다니는 공중의 중생을, 목어는 수중의 중생을,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

하여 울린다. 불전사물은 새벽예불과 저녁예불을 올리기 전에 범고·목어·운판·범종 순으로 울리며, 범종 소리가 그치면 이어서 예불이 시작된다.

범고(法鼓)

범고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양쪽 면에는 각각 암소와 수소의 가죽을 사용한다. 또한 범고의 몸통(복통)에는 황룡(黃龍)과 청룡(靑龍) 두 마리 용이 그려져 있다. 용의 그림으로 인해 용고(龍鼓)라고도 하며 쌍룡은 제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범고를 치는 방법은 양손에 나무막대기를 잡고 한문으로 마음 심(心)자를 그리듯이 친다. 우선 왼손으로 마음 심자 바깥쪽의 점을 찍고, 오른손으로 L자를 그린 다음에 왼손으로 위의 점을 찍고 오른손으로 바깥쪽의 점을 찍으면 완성된다. 범고를 칠 때에는 맨 처음에는 중앙에 정확하게 마음 심자를 그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 심자를 크게 그리면서 치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가능한 마음을 넓게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가장 크게 내는 방법은 막대기로 범고 테두리를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한다.

운판(雲版)

운판은 청동을 구름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운판

‘하늘을 나는 짐승을 제도’ 하기 위해서 친다. 운판에는 보살상이나 ‘옴마니 반메훔’과 같은 진언을 새기기도 하며, 가장자리에 승천하는 용이나 구름, 달을 새기기도 한다. 위쪽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 매달 수 있게 되어 있다.

선종에서는 재당(齋堂)이나 부엌 앞에 달아두고 공양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쓰였다. 구름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구름이 물이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부엌에서 화재를 막는다는 주술적인 이유로 생각된다.

지금은 공양 때에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범고·목어·범종과 함께 아침·저녁 예불을 드릴 때 허공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친다. 운판 소리는 허공을 헤매는 고독한 영혼을 천도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류계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한다.

목어(木魚)

목어는 수중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 목어를 치는 방법은 배 부분에 있는 빈 공간에 막대기를 X자 형태로 하여 바깥쪽을 치는데 뒤에서 앞으로 쳐나가면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난다. 이 목어를 휴대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 '목탁(木鐸)'이다.

목어 유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어느 절에 덕이 높은 승려가 몇 사람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가르침에 따라 힘써 도를 닦았으나, 유독 한 제자만이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할 뿐 아니라, 계율이란 계율은 모조리 어기면서 망나니 짓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몹쓸 병에 걸려 일찍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 생에서는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난 물고기로 태어났다.

하루는 스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등에 큰 나무가 솟아 있는 물고기가 뱃전에 머리를 들어대고 슬피 우는 모습을 보였다. 스승이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가 그 물고기의 전생을 살펴보니, 그게 바로 자기의 가르침을 멀리 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일찍 죽은 과거의 제자임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가여운 마음에 그 스승은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서 제자를 물고기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날 밤 스승의 꿈에 그 제자가 나타나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자기 등에 난 나무를 베어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막대로 쳐주기를 청하였다. 그리하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으로 삼게 될 것이고, 아울러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해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 하였다.

스승은 그 부탁에 따라 나무를 베어 물고기 모양을 한 목어를 만들어 침으로써 많은 중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선종의 지침서 중의 하나인 백장청규(白丈淸規)에 의하면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 또한 이처럼 늘 수행을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만들었으며 이를 침으로서 잠을 쫓았다고 한다.

또한 사찰에서 물고기 형상은 목어 외에도 풍경(風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풍경은 범당이나 전각의 처마, 그리고 탑의 지붕돌 처마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내게 하는 장엄구로 '풍령(風鈴) 또는 풍탁(風鐸)'이라고도 한다.

풍경의 크기가 20cm가 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10cm 내외의 소형이다. 이 중 신라 감은사지 출토의 청동풍경이나 백제 미륵사지 출토의 금동풍경은 특히 유명하다. 이같이 풍경에 도금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나 그 절의 사격(寺格)을 이해하



범고



범종

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풍경은 경세(警世)의 의미를 지닌 도구로서, 수행자의 방일이나 나태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풍경의 방울에는 물고기 모양의 얇은 금속판을 매달아두는데 이는 물고기가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잠을 줄이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범구경에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란 구절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바람을 무애(無碍)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풍경에 다른 장식이 아닌 물고기를 장식한 이유가 바로 무애와 생사번뇌에 벗어난 대자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범종(梵鐘)

범종은 사찰에서 조석예불 때 사용하는 불전사물 가운데 대표적인 범구로서 의식이

나 행사 때 또는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범(梵)'이란 '우주만물이며 진리'란 뜻으로 바로 그 소리를 내는 것이 범종이다. 따라서 범종을 치는 목적은 '모든 중생이 종소리를 듣는 순간 번뇌가 없어지고 지혜가 생겨 악도(惡道)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일체의 지옥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다.

범종은 불법의 소리를 지하의 모든 지옥 중생에게까지 들려주어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예불할 때 울린다. 범종을 울릴 때에는 새벽 종송과 저녁 종송을 각각 외운다. 종송(鍾頌)은 일체 지옥중생을 구제한다는 발원을 세운 것으로 '지옥을 파(破)한다'고 하여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라 한다.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한 시간들

승혜스님 / 법왕사

법왕사보는 '신도광장'이란 공간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신도광장은 지극한 불심으로 열심히 정진하시는 우리 법왕사 신도님들의 수행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신행단체 임원을 비롯하여 여러 신도님들의 활기찬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불교는 인과법칙을 말합니다. 일체가 원인에 따른 결과의 열매입니다. 부처님 모습은 32가지 특징을 가지셨는데 그 원인을 낱알이 밝히십니다. 무지하고 나약하며 오만한 중생들이 지적 의지적 정서적으로 완벽하신 부처님을 닮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곧은 뜻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던 행위가 열매를 맺어 그 인과는 주위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푸른 눈과 긴 속눈썹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법왕사 관음회 권 마하연 회장님이 그와 같이 편안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입니다. 다음은 권 마하연 신도님 얘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불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애들이 중학생이던 무렵에 법왕사를 찾아왔는데 어머니께서 법왕사 지장재일에 꼭 동참하시는 불자십니다. 백고좌법회 6회부터 법왕사와 인연을 맺었어요. 백고좌법회의 법사스님들 법문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기도 정진했던 덕분에 세상살이가 수월했습니다. 애들도 무난하게 성장했고 딸 둘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부처님을 인연한 신앙생활의 큰 보람은 우리 집 거사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사

실입니다. 기독교계통 학교 출신이고 직장도 그랬던 거사님이 타 종교에 물들지 않았어요. 모조리 타 종교인 모임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거사가 부처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더군요. 동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해요. 학교 도서관에 불교서적 배치도 관심을 갖더니 요즘은 내가 편안하게 신행활동을 하게끔 많이 도와줍니다. 부부가 한적한 곳에 불상까지 모셔놓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같은 신앙으로 부부에서 동반으로 법담을 나누게 된 것이 참 기쁩니다. 신앙과 이념이 다른 가족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법왕사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모두들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했던 당시 여건을 극복하면서 주지스님과 함께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때 후원일은 수많은 신도들로 넘칠 정도였지만 열성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지금도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왕사는 백고좌법회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주지스님의 원력이 크십니다. 추운 겨울에는 동참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방석에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에 무리가 오는 나이입니다.(웃음)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백고좌법회의 좋은 기회를 신도님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백고좌법회의 법사스님들
법문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기도 정진했던 덕분에
세상살이가 수월했습니다.
애들도 무난하게 성장했고
딸 둘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꾸준하게 새로운 법우님들이 찾아오길 원
합니다.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앞에서 108참회문
을 읽고 절을 하는데 감동으로 눈물이 많
이 났었습니다. 불자로서 초발심이었을까
요? 정전은 육조단경을 혼자 읽었는데 가
슴에 닿았고 저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
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구절을 많이
새겨봅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설법에서는 초기경전

설법이 귀에 쏙 들어오더군요. 아마 부처
님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생사해탈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법문이 펼쳐지기 때문
이겠지요.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화엄을 설
법하는 어느 교수님 법문을 무려 5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입시기간에는 열심히 기도하여 큰 애의
대학입시부터 미리 둘째 딸 입시기도를 준
비하던 이런 불심이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언젠가 두 딸도 부처님과 인연 맺기를 바

랍니다.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족들과 화
합하면서 살았습니다. 딸들이 서울에 거주
하는 바람에 한 번씩 서울 나들이를 합니
다. 그런 기회에 서울에 계시는 법사님들
법문도 가끔 챙겨듣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직접
닥치니까 헤쳐가기 힘이 들지만 그동안 수
행한 것을 바탕으로 큰마음을 내어 언니한
테 암하고 같이 산다고 여겨보라 했어요.
기도로 극복하자고 격려를 합니다.

앞으로 아미타불 정근을 하겠노라고 마
음 먹습니다. 여태 관세음보살 신앙으로
집안이 편안하고 딸애들을 위한 기도를 성
취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륜 따라 사후세계
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초기경전, 부처님의 설법분량이 긴 것을 모
아놓은 디가 니카야 제3권 제7 삼십 이 상호
경에 부처님 상호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는 내
용이 나타납니다. 많은 군중이 모인 것을 살펴
본 뒤에 자신과 같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잘 알아서 이 사람은 이래서 온당하고 저 사람
은 저래서 온당함을 판단하고 곳곳에서 사람
들의 처지와 차이에 알맞게 대한 행위는 그 인
과로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누릴 것이

많아지고 풍요롭다고 합니다. 출가한다면 믿음
과 계율과 지혜가 풍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권 마하연 신도님을 인터뷰하면서 경의 저
구절이 기억났습니다. 신도님께서 이미 전생
부터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었다던 것을 대
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법왕사 관음회원님들
에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무한하길 기원
하면서 대담을 마쳤습니다.

덕주공주의 전설이 담긴 월악산 덕주사

덕주사(德周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범주사의 말사다. 덕주사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진평왕 시절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누가 창건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동국여지승람'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의 마지막 공주 덕주공주가 오라버니 마의태자와 함께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 마애불을 조성하고 절을 세운 뒤, 금강산으로 떠난 마의태자를 그리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덕주사는 본래 월형산(月兄山) 월악사(月岳寺)라고 불렸으나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딸 덕주공주가 살았다고 하여 산 이름을 월악산이라 하고, 절 이름을 덕주사라고 했다고 한다. 덕주사는 상, 하 두 절이 있었다. 지금의 절을 하덕주사라 하고 보물 제406호인 덕주사마애불(德周寺磨崖佛) 주변을 상덕주사라고 했다. 아쉽게도 두 절은 1951년 마애불만 남긴 채 모두 소실되었다.

상덕주사는 1622년(광해군 15)에 중수되었음이 옛 극락전 자리에서 발견된 명문 기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지금의 덕주사에서는 1206년(희종 2)에 조성된 금구(禁口)가 발견되어 고려시대 덕주사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1963년에 중창되었고, 1970년과 1985년에 각각 중건하였다.

덕주산성의 성문을 지나면 덕주사가 나온다.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선 덕주사의 가람은 관음전구역과 대웅보전구역으로 구분된다. 관음전구역은 덕주사가 중창되면서 이루어진 구역이며, 대웅보전구역은 새로 불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구역이다.

관음전구역은 관음전을 중심으로 좌측에 약사전과 공양간이 있다. 관음전의 문살은 빗살창무늬 위에 꽃꽃이를 한 화분 모양을 조각하여 각 칸마다 꾸며 놓은 것이 특이하다. 약사전에는 약사여래입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6호)이 모셔져 있다. 약사여래불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한수면 역리에서 1985년에 옮겨진 것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이다. 약사여래불은 전문 장인의 손이 아니라 신심이 돈독한 불자의 원력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장 한국적인 불상이라는 평가이다. 관음전 앞에는 월악산의 강한 음기를 누르기 위해 세웠다는 남근석이 있다.

대웅보전구역은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대불정비각과 산신각이 있고 정면 한쪽으로 종각과 석조맷돌, 석탑 옥개석이 있다. 1998년에 건립된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덕주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애불(磨崖佛)이다. 마애불은 1964년 9월 3일 보물 제406호로 지정되었다. 거대한 암벽에 조각되어 있다. 높이는 무려 13m나 되는데 얼굴부분은 도드라지게 튀어나온데 비해 신체는 선으로만 새겼다. 과장된 얼굴의 표현은 고려시대의 거대한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이다. 고려 초기의 거대한 불상 조성 추세에 힘입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불정주범자비(大佛頂呪梵字碑)라는 독특한 비석이 하나 있다.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광사지 옆에 있던 것을 이곳



산신각

으로 옮긴 이 비에는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표기한 옛 글자인 범자(梵字)로 비문이 새겨져있다. 대불정주(大佛頂呪)라 음각된 한자로 시작하는 비문은 105자로 추정되는 범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고려 후기 성행하던 수능엄경(首楞嚴經)에 있는 능엄주(楞嚴呪)를 새긴 것이다. 범자로 된 비문이 현존하는 것으로 유일하며 고려 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범종각



덕주사에는 어느 때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우탑(牛塔) 1기와 조선시대의 부도(浮屠) 4기가 있다. 우탑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얽혀 있다.



대웅전 삼존불

덕주사에 승려가 많아지면서 기거할 공간이 부족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목재를 실어 날랐다. 소가 가는 곳을 뒤따라가 보니 현재 마애불이 있는 바위 아래였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곳에다 새롭게 부속건물을 지었고, 재목을 모두 실어다 놓은 소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 소를 기리기 위해 세운 탑이 우탑이다. 또 부도에는 환적당(幻寂堂), 부유당(浮遊堂), 용곡당(龍谷堂), 홍파당(洪波堂)이라고 음각된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

덕주사 바로 앞에는 덕주산성이 있다. 또 하늘재, 미륵사지 등 한번쯤 가볼만한

문화재도 많다. 덕주계곡, 송계계곡, 월악계곡 등은 맑은 물과 시원한 산림으로 여름 피서지로 최적지이다.

덕주사 가는 길

승용차

중부내륙고속도로 과산(수안보) 나들목에서 나와 597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 수안보 온천을 지나 한수면 송계리로 진입하면 덕주사가 나온다. 또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나들목에서 내려 충주방면으로 가다가 597번 지방도를 타면 된다.



불교의 노동관

마성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현재의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는 실업(失業)이다. 생산 활동에 종사할 직장과 직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실업은 한 개인의 불행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개인의 힘이나 국가의 힘은 모두 경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실업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다. 리프킨

은 이 노동의 위기에 대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반사회적 행위 속에 발산하고 있으며, 노년층 노동자들은 과거의 영광과 암울한 미래 사이에서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¹⁾고 진술했다.

그런데 실업자가 증대하면 사회적 긴장이 증대한다. 실제로 실업의 상승은 범죄와 폭력을 급증시킨다. '머바와 파울스의 연구'(Merva and Fawles Study)에서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1%의 실업 상승이 6.7%의 살인 및 3.4%의 폭력범죄, 그리고 2.4%의 재산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²⁾ 그런데 붓다는 「전륜성왕사자후경(轉輪聖王獅子吼經)」에서 빈곤이 절도, 거짓말, 폭력, 증오, 잔혹 등과 같은 부도덕과 범죄의 원인이라고 이미 밝혔다.³⁾

그러면 전 지구적 실업이 증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은 급기야 '세계화된 경제' 또는 '세계 자본주의'를 낳았으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세계 자본주의는 노동의 위기를 초래함은 물론 약소국과 주변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⁴⁾

이러한 '노동의 위기'는 잘못된 노동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노동은 본래 신성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이 교환가치 또는 화폐가치를 지닌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임금노동으로 전락해 버렸다. 노동을 단순히 상품으로만 인식하게 되었다.⁵⁾ 그러나 노동을 하나의 상품가치로만 취급하는 풍토 속에서는 건강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고, 노사갈등이나 실업문제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노동을 어

떻게 보고 있으며, 불교적 입장에서 본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 보자.

1) 노동의 개념

불교적 입장에서 노동은 의식적이고 합목적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노동(勞動, labor)이라는 말과 완전히 일치하는 불교 용어는 없다. 다만 '업(業)'이라는 단어가 가장 근접할 뿐이다.

업(業)이란 산스크리트 까르마(karma, 팔리어 kamma)를 번역한 것으로, '행위', '행동', '일', '활동', '작업', '가업'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까르마(karma)는 'kr'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kr'는 '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준비하다', '완수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⁶⁾

불교의 업설(業說)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에 상응하는 결과, 즉 과보(果報)가 수반된다. '선인선과(善因善

1)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서울 : 민음사, 1996), p.23.

2)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p.280.

3) DN III, p.65f. 4)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30.

5)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30. 6)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32.

果) 악인악과(惡因惡果) 라고 일컬어지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업이 과보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의도와 의지의 개입이 요청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지작용에 바탕을 둔 선업과 악업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지만,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의식적 행위라 할 수 있는 무기업(無記業: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업)에는 과보가 없다고 설한다.⁷⁾

이러한 불교의 업설은 오늘날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의 의미와 합목적성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이란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식적이고도 합목적적으로 그의 신체적·정신적 힘을 자연에 작용시켜, 또는 도구나 기계를 매개로 해서, 자연을 인간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⁸⁾라고 정의한다.

한편 노동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생산노동과 소비노동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노동과 작업을 구분하여, 노동

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생명과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작업(work)은 개성을 표현하고 형태화와 지속적 성격을 가지는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⁹⁾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간과 세계’, ‘정신과 육체’의 유기적이고도 역동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굳이 노동의 개념을 세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¹⁰⁾

2) 불교에서 본 노동의 의미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해지는데, 하나는 괴로움의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유전문(流轉門)이고, 다른 하나는 괴로움의 소멸과정을 보여주는 환멸문(還滅門)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한 부류는 유전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환멸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동이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때, 두 부류의 삶은 모두 노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노동 역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른바 ‘유전문의 노동’과 ‘환멸문의 노동’이 그것이다.¹¹⁾

이와 같이 ‘유전문의 노동’과 ‘환멸문의 노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교의 노동관을 정립하는데 있어 참으로 중요한 두 핵심적인 축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회·윤리적 의미, 심리적·종교적인 의미까지 갖는다. 그리하여 노동은 인간의 다양한 속성과 차원을 반영하는 삶의 총체성이기도 한 것이다.

(1) 노동의 경제적 의미

인간이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화(財貨)의 획득이 필요하다. 토지 및 자본과 함께 생산의 세 가지 요소라 일컬어지는 노동은 이러한 재화의 획득과 증식이라고 하는 경제적 의미가 그 기본적 의미이다.¹²⁾

초기경전에서는 이러한 노동의 경제적

의미를 설하고 있다. 거기에는 재화의 획득과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의 의미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다.¹³⁾ 더 나아가 재화의 획득과 증식을 위해서는 단순한 육체적 힘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먼저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것을 경전으 설한다.¹⁴⁾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의 경제적 의미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노동은 상품가치 이상의 것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 대량생산 체제하에서의 인간은 한낱 기계의 부품이나 노예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노동의 경제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이 경제적 의미에만 너무 집착할 때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행복 또는 총체적 행복이 파괴된다.¹⁵⁾

(계속)

7) 윤병식, 『佛敎思想에 있어서의 勞動哲學의 意味發見』, 『哲學思想의 諸問題(Ⅲ)』,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298-299.

8) 전기호, 『신노동경제학』(서울: 무역경영사, 1995), p.26; 김종호, 『노동과 인간』(서울: 이문출판사, 1990), pp.7-9.

9) 김종호, 『노동과 인간』, pp.9-10.

10)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34.

11)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p.238-239.

12)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40.

13) AN I, pp.116-118.

14) 『長阿含經』 권11, 제16 『善生經』(『大正藏』 1, p.72b), “先當習伎藝, 然後獲財業, 財業既已具, 宜當自守護”

15)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p.241.

법왕사 소식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불구 모연 중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조성 불사회향을 앞두고 삼존불을 장엄할 천장의 상들리에와 촛대, 향로 등 불구를 보시받고 있습니다. 법왕사 대적광전은 천정 높이 9m에 이르는 장대한 법당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등 삼존불을 봉안합니다. 도량과 법당,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물을 보시받고 있사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봉행 중



갑오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6월 23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8월 10일에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 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풀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백고좌법회 41일차 향봉사님 특별법문



지난 6월 21일 백고좌법회 제41일차 법회에서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사님께서 특별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주제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법문하셨습니다.

제27회 백고좌법회 봉행 중

지난 5월 13일 입재한 법왕사 제27회 백고좌법회가 불자들의 많은 동참 가운데 봉행 중에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올해 모두 세 차례의 백고좌법회를 봉행하는데 제26회 법회를 회향한데 이어 27회 백고좌법회가 열리고 있으며 28회 백고좌법회는 9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백고좌법회는 천일기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갑오년 한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여법하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법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계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법왕사 소식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산책로 개설



최근 요양원을 확장하면서 경내 광장에 요양원에게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새로이 산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도량 입구부터 복지관까지 이어지는 약 100m의 자연석 산책로는 잔디밭과 이어져 있어 어르신들이 나들이하시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회 경로잔치 봉행



1천명 초청 제43회 경로잔치 한마당이 지난 5월 31일 복지관 지하에서 지역 어르신 1천여분을 모신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법왕사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찬조한 음식과 경품을 어르신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렸으며, 법왕사 사물놀이단의 공연 및 찬조 출연한 불자 연예인들의 흥겨운 공연도 한마당 펼쳤습니다.

해오름 풍물단 사물놀이 공연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2014 내고장사랑대축제 전야제 무대(대구 월드컵스타디움 태극광장)에서 법왕사 해오름 풍물단이 사물놀이로 축하공연을 펼쳤습니다.

법왕불교대학 강좌 일제히 시작

법왕불교대학 강좌가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만불전에서는 영일스님의 근본불교 강좌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지스님의 기초교리 강좌가,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주지스님의 지장경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 ◆ 이현석, 배선아님의 장남 진욱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 조복래, 김분용의 차남 현봉군과 서길수, 채차연님의 차녀 영성양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이은희	김용태	손말두	김희국	황근학
노시근	이창호	장수남	박대팔	정수오
이명숙	김명욱	배재용	박정숙	권오생
박태철	장선령	이영철	최윤희	이정화
박재기	박희조	김중락	신충호	석종순
정창진				

불사 올리신 분

- ◎ 원불 봉안하신 분
김경천(지장보살 소불)
- ◎ 한 평 불사하신 분
박대팔 문해숙
- ◎ 범종 불사하신 분
강성구
- ◎ 법사비 보시하신 분
양혜진
- ◎ 법 보시하신 분
김경남 영가(지장경 50권) 김민정(지장경 30권)
정광춘(서장 9권)
가산스님(귀원종정 : 10부, 직지심경 : 10부)
- ◎ 4층 대적광전 삼신불 올리신 분
180 김경원 181 심보현, 이임숙 182 심규민, 심규웅
183 자윤스님 184 최태희, 채용자, 최금부
185 강동우 186 하창호, 현미숙 187 한영호
188 김일근, 고연숙 189 조중훈, 조재원
190 안주선, 진순이, 안종현, 안지영 전미진
191 이선재, 정순옥 192 장인숙
193 장정희, 최영석 194 김상수, 이지송
195 황현숙, 박정은 196 신충호, 이지선, 신지원
197 이승재, 장용선, 이준호
198 박영승, 이지영, 박진우, 박수진 199 이지현

- 200 김성훈 201 권창욱, 권창모 202 강정선
203 김하균, 김익균
- ◎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 불사하신 분
김종황 이원석 이정철 오금옥 신현수
석종순 황현숙 박동근 조병채 권민서
박종성 박경훈 박태철 배해동 김대덕화
구실상화

연등 올리신 분

- ◎ 갑오년 본당등 올리신 분
44 전병선
- ◎ 갑오년 만불전 일년 법당가족등 올리신 분
759 정수남 760 김기현 761 박태철

경로잔치 후원하신 분

- 최태희 정옥선 정국영 김선우 박정욱
권순덕 김옥희 최금부 신임선 이상조
박계옥 김민지 이영애 이창호 서치경
김상수 도심화 이희동 채차연
김봉조(수박 현물) 류윤민(비나 현물)
동영유치원 이상조(대중공양)
권영희(공양미) 배해동(떡 한말 현물)
손혁준(대중공양) 정국영(공양미)
정옥선(공양미) 이희수(두부 현물)
김영국(떡공양) 이대각(대중공양)
권도형(경품) 윤원도(대중공양)
김성행일(대중공양) 백보현행(공양미)
백대행심(대중공양) 구실상화(대중공양)
요양원직원(이효조, 이승미, 강선옥, 임승현)
지장회 20만원 신장회 20만원
산신회 5만원 관음회 20만원
합창단 10만원 관음회 회장 5만원

공양 올리신 분

- ◎ 공양미 올리신 분
정형용 심보현 권오성(백고좌)
오진환 김혜진(지장재일)
-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이재우(참외 1박스 현물)

왕생극락하옵소서

- ◆ 김상연 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도부연 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김복순 영가님의 막제가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서갑임 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배팔상 영가님의 막제가 6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이경출 영가님의 막제가 6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김순애 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권혁진 영가님의 초제가 6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유영호 영가님의 기제사가 6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김상연 영가님의 오제가 6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법왕사 불교대학

- 불교대학 기초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주지스님 강의)
- 불교대학 중급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영일스님 강의)
- 지장경 강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주지스님 강의)

제43회 경로잔치가 5월 31일에 있었습니다.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법왕사 BBS-TV 광고시간

- BBS1(백고좌대법회)
게시판 광고 : 8:20, 11:20, 14:50, 19:50
스크롤 자막광고 : 7:30, 8:30, 9:30, 11:00,
12:00, 20:00, 21:00 22:30, 23:00 24:00
- BBS2(해오름요양병원)
게시판 광고 : 9:20, 11:50, 15:50, 20:50
스크롤 자막 광고 : 13:00, 14:00, 15:00,
16:00, 19:00, 20:00, 21:00, 22:30, 23:00,
24:00

- 정연이(천일기도 : 토마토 현물) 정미혜(천일기도)
박영민(천일기도) 강분재(천일기도)
이준희(천일기도) 박동근(수박 현물)
이준목(산신기도) 이승재(초파일 과일공양)
- ◎ 떡공양 올리신 분
정영미(떡 2되 현물) 김우영(천일기도)
이종량(천일기도) 흥대현(초하루 : 떡 현물)
배해동(김경남 영가 막제) 김도유(지장재일)
백수경(보름) 신병기(산신기도) 최윤재(생일)
-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정성현지 권혁만(감자 현물)

초파일 후원하신 분

- 신장회 40만원 관음회 20만원
지장회 20만원 합창단 10만원
산신회 2만원

사보 도움주신 분

- 권영숙 150부 삼불사 혜성스님 150부

요양원에 보시하신 분

- 박종성 박경훈

후원 물품 보내신 분

- 장어와 미꾸라지(남구 봉덕동 : 유종건)
- 매월 40인분 추어탕
김순란(과일 2만원) 신장회(참기름 매월 3만원)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 다 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사찰요리 : 개강 예정	
🌸 사물놀이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서 각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꽃 꽃 이 : 승혜스님(비구니)	

해오름 소식

놀이프로그램



김명희 선생님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웃음과 감동을 받는 놀이치료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선생님이 어르신들께 내주신 속제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잊지 마시고 방문하실 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요.

무료치매검사 실시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에서 주최한 어르신 무료치매 검사 행사가 요양원 내에서 있었습니다. 매년 1회 실시되는 무료치매검사에 입소 이용어르신들께서 전원 다 참여하셨고, 보건소 직원의 질문에 마치 면접을 보시는 듯 바짝 긴장하셨답니다!

참사랑문화봉사단



참사랑 문화봉사단의 흥겨운 공연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점잖게! 마지막 끝날 때는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공연! 봉사단의 반주에 맞춰 노래와 춤으로 한껏 재능을 발휘하신 어르신들께도 감사합니다!

미술치료프로그램



조물조물, 뭘 듯 말 듯! 어르신들의 탄성이 이어지는 미술시간입니다. 진지하게 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작품이 탄생할 듯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미술작품들 기대해 주세요!

이·미용 봉사



어르신들의 아름답고 멋스런 헤어스타일을 책임지실 미용 봉사자분들께서 오셨습니다. 한껏 가벼워진 헤어스타일로 여름 맞이를 하게 되었지요, 새로 오신 봉사자님들 반갑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최은선(미술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참사랑문화봉사단, 씨포터즈봉사단, 이·미용봉사단, 여우비(시지고등학교) 장례의전봉사단(김중락 011-811-0030)

| 학생 정기봉사자 |

장임영, 이가영, 김지현, 최준혁, 김명지

해오름 게시판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5월)

◎ 수입내역

◎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김상철 5천원	신임선 5천원	윤정연 1만원
정활수 3만원	김순연 5천원	박정숙 1만원
금강사 2만원	한규매 5천원	황학영 1만원
이호동 5천원	이은경 1만원	정연이 5천원
신수희 1만원	우포정사 1만원	서규하 2만원
오금옥 1만원	김미정 1만원	최경순 1만원
이승미 1만원	이인선 5천원	박성숙 5천원
성외련 2만원	권명진 1만원	김봉숙 5천원
정옥수 5천원	고연수 1만원	정운현 5천원
오년옥 5천원	웅마관음사 3만원	정활수 3만원
김은주 1만원	박대희 5천원	김진현 5천원
임상덕 1만원	장성용 1만원	이병희 1만원
박동규 5천원	김임태 5천원	정대영 1만원
이남희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시영 1만원
김영랑 5천원	김순란 3만원	반룡사 1만원
권보형 2만원	손말두 5천원	안상준 2만원
정경숙 1만원	홍새미 1만원	박재후 1만원
신구자 5천원	전행연 1만원	조규인 1만원
허유미 5천원	조영석 1만원	신세호 1만원
사공관 1만원	황지영 5천원	박학순 1만원
이승미 1만원	이점례 1만원	장효주 5천원
강소남 5천원	이홍욱 1만원	채옥연 5천원
정선옥 5천원	김정희 1만원	김대현 5천원
배수현 2만원	남기웅 1만원	윤순희 1만원
김외환 1만원	신돈식 1만원	강유미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박순남 5천원	여택동 5천원
이정희 5천원	김수라 1만원	박용관 1만원
이종희 5천원	이전희 5천원	최분규 1만원
김영희 5천원	안경순 1만원	김우영 1만원
유명옥 1만원	정순옥 5천원	권오성 1만원
김경환 2만원	양니영 5천원	신화식 1만원
강신규 5천원	시명스님 5천원	김기덕 2만원
민주현 1만원	박태숙 5천원	성승길 1만원
안명희 1만원	조창신 1만원	이은주 3만원
임승현 1만원	황미선 2만원	황준원 1만원
문정애 2만원	권영희 1만원	이임숙 2만원
최창숙 5천원	류윤만 1만원	김형택 2만원
현인숙 1만원	조정자 5천원	노귀자 5천원
권영희 1만원	노수정 1만원	박치민 5천원
이정옥 1만원	강숙영 1만원	권계화 1만원

장성규 5천원	정무시 1만원	정경석 2만원
김정순 3만원	김미자 1만원	김정임 1만원
김영일 1만원	도화순 5천원	권숙자 1만원
정옥선 1만원	장재혁 5천원	현영희 1만원
박귀분 1만원	양봉훈 1만원	강영도 2만원
홍유식 5천원	이재봉 5천원	이정훈 1만원
윤광숙 5천원	김정규 5천원	심규암 5천원
김원형 3만원	엄세비 1만원	김정자 5천원
김예분 1만원	한희록 1만원	김기수 2만원
박순영 5천원	박병준 1만원	구정대 2만원
임익균 1만원	황상욱 2만원	김순태 1만원
권봉자 3만원	최은순 1만원	김민주 1만원
곽순복 2만원	김경호 1만원	신진무 1만원
강선옥 1만원	백옥수 5천원	권기철 1만원
김진성 1만원	진봉희 1만원	임예숙 1만원
심중순 5천원		

계좌이체 후원하신 분

김미경 5천원	이강복 1만원	이은희 5천원
---------	---------	---------

지로용지 후원하신 분

무기명 10만원

합계 1,85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188,010원
- 약품구입	9,00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68,700원
- 우편배송비	5,930원

5월 총 사용내역 339,64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box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미에로화이바 1box

권민자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box
장말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김명희 : 카스타드 2box
이시중 어르신 보호자 : 두유 1box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box, 요구르트 30개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 수박 2통, 참외 6개, 방울토마토 1box
정잠분 어르신 보호자 : 과일주스 2병
권영률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1box, 수박 1통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강용모 : 비타500 1box
신장희 : 참기름 3만원 상당
김순란 : 과일 2만원
장어와미꾸라지 : 추어탕 40인분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상들리에 · 불구 보시 모연문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조성 불사회향을 앞두고 삼존불을 장엄할 천장의 상들리에와 촛대, 향로 등 불구를 보시받고 있습니다. 법왕사 대적광전은 천정 높이 9m에 이르는 장대한 법당으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등 삼존불을 봉안합니다. 도량과 법당, 불상의 위엄에 걸맞는 장엄물을 보시받고 있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법당용 6봉 연등, 법당 연법등, 향로 촛대 세트**

불사하신 분

김중환 이원석 이정철 오금옥 신현수 석종순
 황현숙 박동근 조병채 권민서 박종성 박경훈
 박태철 배해동 김대덕화 구실상화

해오름요양원이 확장되었어요!

〈1층 19명 추가 허가받음〉

“해오름요양원이 기존 25인 시설에서 44인 시설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달 여 공사 끝에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면서 힘드신 일은 없으신지요? 효를 실천하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부모가 어린자식을 정성으로 돌봐줬듯 늙어가는 부모님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돌봐드립니다. 남은 여생을 보낼 공간 무엇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오름은 내 집 같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가족이 되겠습니다.



제2해오름요양원 ·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찬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음 새겨드림)
문의 중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증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나이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겨지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육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겨져 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하사 미래알 같은 증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쫓아내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윤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고좌 법회도량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기도의 넘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님들의 심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도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행단체 모임안내

- | | | | |
|-------|----------------------------------|-------|------------------|
| 신 장 회 |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 인 등 회 |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
| 산신기도회 | 매월(음) 16일 오후 4시 | 지 장 회 |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
| 관 음 회 |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 합 창 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천일기도회 |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후 2시~4시까지 주지스님 집전 | | |